

開化期以後 家政科教育의 史的 考察

—1900~1945년을 중심으로—

A Brief Histor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fter Modern Period(GAEWHA-KI) — (1900~1945)

목 차

- I. 서 언
- II. 신교육의 도입과 가정과 교육
 - 1. 개화기 이전의 여성교육
 - 2. 초기의 가정과교육
- III. 보호조약 시대의 가정과교육
 - 1. 고등 여학교령 공포와 가정과교육
 - 2.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과 특색
- IV. 일제치하의 가정과교육
 - 1. 일본의 교육방침
 - 2. 가정과 교육내용
- V. 결 론
- 참고 문헌

창덕 여자 중학교
Changduk Girl's Middle School
교 사 양 문 식
Teacher, Yang Muwn Shik

ABSTRACT

Brief histor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fter modern period (GAEWHA-KI) (1900~1945).

Education of home economics in our country is known to have been developed mainly through school education by need of women education.

The first period is construed "from 1890's until before the conclusion of ULSABOHO treaty, which can be referred to as an inception of the education for home economics by including subjects of sewing and manual arts in the curriculum of EWHA-hakdang.

The second period is "from the conclusion of ULSABOHO treaty in 1905 until the act of higher education for women was decreed, transition of the edcation for home economics and major curriculum thereof and the text books of home economics are handled.

The third period is "from the promulgation of CHOSUN education act in 1911 until the fall of Japan education of home economics in this period is described in terms of national educ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education was first renewed by women missionaries with the onset of "blooming period (GAEWHA-KI)" and school education of home economics for educating women was initiated at EWHA-hakdang in 1896, in 1908,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act of higher education for women, major curriculum and subjects were set up and text books of home economics were also compiled.

In accordance with CHOSUN education act in 1911, housekeeping and sewing subjects at secondary school were taught 10 hours a week with the emphasis on general education and practical subject oriented training.

Home economics under the Japanese rule was so educated as to imbue students with the sense of nationality by teaching Korean custom and family habits.

I. 서 언

역사가 가지는 의의는 과거를 되살림으로써 현재의 참모습을 정확히 파악해 주며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본다. 우리의 선조가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떠한 제도와 내용으로 교육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문헌에 의하면 1896년 이화학당에 가사과목이 생긴 것을 기점으로 가정과 교육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화를 이룬 가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육은 사회구조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의, 식, 주, 육, 아 기타 이에 이따르는 물질적 정신적 현상에 걸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이를 검토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제통을 세워 실천하며 여기에 필요한 기술 및 물자에 관한 것을 학습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생활은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고 그것을 다시 생활에서 소비시키는 행위가 포함되며 물자의 소비에는 기술이 따른다.

여기에서 기술이란 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사용되는 것이지 기술 그 자체가 생활은 아니다. 개화기를 중심으로 여성교육의 확립과 함께 종래 가정과 교육은 단순한 조리 재봉의 생활 기술을 전승하는 기술교육을 중요시하였으나 오늘날의 가정과 교육은 이러한 이론이나 지식의 전달보다는 실습을 통하여 실천하는 생활인을 기쁨으로써 실생활에 보다 나은 향상을 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때 실습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행동화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 생활에 활용하는 기술로써 체득케되며 이러한 기술은 독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시켜 종합적인 가정경영상의 기술로 훈련케 해야 한다. 초기 가정과 교육은 미국의 여선교사에 의해 교과내용이 적여지고 교수가 되었으

나 재봉은 주로 한재를 양반집 규수를 초청하여 지도하였으며 한일합방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는 황민화정책과 함께 일본의 가정과 교육의 답습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가정과 교육은 민족교육으로서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같이 가정과 교육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발표가 있음을 볼수 있으나 가정과 교육의 역사적인 고찰에 대하여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었다.

본인은 자료가 허용하는 한 여자중고등학교의 학교사, 조선여속고, 한국여성사, 한국교육사, 한국교육사 한국사, 교육연감등을 중심으로 문헌에 의한 방법과 면담을 통하여 개화기 이후에서 해방전 까지의 가정과 교육의 사적 고찰을 통하여 현재의 가정과 교육의 방안 모색의 지표로 삼으려 한다.

II. 신교육 도입과 가정과교육

1. 개화기 이전의 여성교육

과거의 여자의 교육은 가정교육에 국한하였다. 500년에 가까운 이조 전래의 봉건사회와 유교적 문화동토에서 여자의 책임을 말하기를

「女子者는 其職任이 唯在, 割烹裁縫, 灑掃井臼而已니 但 使順從於男夫舅姑오 而更無他事 要望於女子矣라하야…」

라고 하여 주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물을 길고 방아찧기 등의 가사일을 돌보며 남편과 시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았고 이조시대의 여자의 생활은 동양 전래의 내외(內外)라는 준엄한 도덕율에 의하여 외방 세계로부터 차단되었기 때문에 교육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매우 수준높은 문자 교육이 행하여졌다. 더우기 세종 38년(서기 1446)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생긴 뒤에는 중류이상 가정의 여성들의 修學內容 및 범위는 대체로 教訓書와 이야기책의 두가지로 大別할 수가 있었다. 教訓書는 后妃明鑑, 內訓, 三綱行實, 烈女圖, 小學諺解 五倫歌 警民編, 權民歌, 諺文四書 등이었고 이야기책은 그 종류가 1,100종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읽는 책이 심청전, 속향전, 박씨부인전, 옥류몽, 구운몽, 倡善감의록, 사씨남정기, 흥길동전, 장화홍련전, 백학선전, 습성의전, 유충열전, 제마무전, 삼국지, 조웅전, 소대성전, 양풍운전, 흥부전 등이 있고 내용은 효열과 충의를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 가정과 사회를 중심으로 한 것도 있으며 탐관오리의 악행, 영웅 호걸의 패사를 상찬한 것도 있어서 부지중 교양을 주는 것이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교육관은 근세. 통유(通儒) 이익(李滉)의

「부인은 勤과 儉과 男女의 有別의 三戒를 일면 족하니라. 독서와 講義는 장부의 일이니 부인이 이를 힘쓰면 폐해 무궁하니라」

라는 말은 당시의 여자 교육관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제약속에 개화사상이 사회전반에 침투된 1890년대에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가 비판되면서 강력히 대두된 것이다.

2. 초기의 가정과 교육(1890년~1905년)

1890년대 개화와 더불어 신교육의 도입은 기독교의 여선교사들에 의해서 여성교육의 시'작을 가져왔다.

이 시기 가정과 교육은 기독교 여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그 당시 여 학교 설립과 함께 교육 목적을 한국적인 모범적 주부로 만드는 동시에 그들의 친척과 동료 사이에 기독교의 전파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교육 목적을 설정하였다.

최초의 여학교 실태를 살펴보면 모두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의, 식, 주까지 포함한 무상 교육이었다. 입학자격은 연령과 소학교의 졸업여부가 아니고 기독교 신자가 되겠느냐에 따라 학부형과 동반아래 입학이 이루어졌다.

초기의 교과목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새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될 때마다 과목이 첨가되었으며 교수어는 영어였다.

시험은 도강(都講)이라하여 외부의 교사를 초청하여 남교사의 경우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병풍을 쳐서 배우는 것을 외우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필담교사가 아니고 배운것을 덮어 놓고 외우는 방법이었다. 당시의 교사는 권위적인 존재였다. 여학생도 나어린 학생에 한하여 처벌이 가해졌다. 이때 처벌이 가할 경우 남교사가 직접하지 못하고 남선생이 제출한 명단에 의거하여 지적하는 학생을 여교사가 처벌하였다.

이 당시 실시한 가정과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포오드(D.L. Gifford)의 보고에 의하면

「이 학교의 가정과는 재미있다. 학생들이 재봉과자수(한국것과 외국것)을 배우는 외에 연장한 학생들이 입는 옷 전부를 손질 한다…」

라고 하여 가정과 수업의 단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교과목은 가사, 편물, 수예, 침공(針工) 등이었다. 교과서는 없었고 단지 필요한 때는 동사물에 의존하였으며 가사는 실제로 아침 저녁을 지어 먹는데서 실습이 되었고 침공은 오늘날의 재봉으로 그 당시는 주로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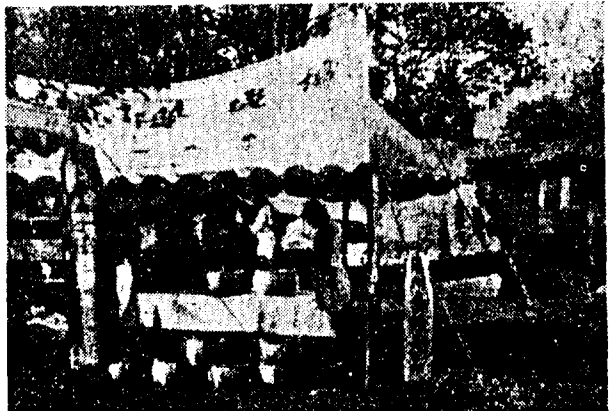


사진-1 최초의 바자회

옷을 해입는 것으로 침공과 수예를 특별히 취급하여 많이 가르쳤다. 최초의 가정과 바자회는 1903년 정신여학교에서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일년내 배운 수예품과 공예품등을 여름이면 대회를 열었다. 교정에 천막을 군데군데 치고 남쪽으로는 제주도 풍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함경도 풍물을 모두 각자가 자기 고향의 특징있는 물건을 만들어 대회에 출품하는 일이었다. 기한은 일주일인 바 그 대회장에는 전국 각처의 특징있는 별난 음식등을 요리해서 팔고 사먹는 식의 과정을 아주 흥겹게 진행시킨 대회였다. 그 당시의 실습 내용과 하등의 상관없이 과일이나 과자나 특별히 이상한 별식등도 출품하였으나 이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대회 이름이 가리키는 것과 같이 바자에 중점을 두었다. 바자회에 출품한 수예작품은 옷, 취장, 염낭주머니, 책상보, 옷보, 베개마구리의 수 등이 있었다. 이와같은 기록을 볼때 1903년의 바자대회는 학생이 1년간에 배운 가정과 교육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초기(1890년~1905년 이전) 가정과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의 여성교사들이었고 한국인은 단지 재봉만을 지도하였는데 일정한 자격이 없이 경영자가 인정하는 양가집 규수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였다. 이것은 여성교육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육도 기독교의 여성교사들에 의하여 교수되었고 여성교사들이 가정과 교육에 준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교육을 향상시켰다.

둘째, 관, 혼, 상, 제의 허례허식의 배제에 힘썼다.

셋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넷째, 서양문물의 소개로 음식, 의복, 가정일반에 걸쳐 많은 지식을 보급하였다.

Ⅲ. 보호조약 시대의 가정과 교육

1. 고등여학교령의 공포와 가정과 교육

1908년 4월 2일 칙령 22호로 고등여학교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선 교사들에 의한 독점 상태의 여성교육이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여성교육에 관심을 표시한 최초의 일이었다. 고등여학교령을 보면 제1조 고등여학교는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 및 기예를 수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하였고 새로 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고등여학교는 그 수업년한이 3개년으로 하고 지방사정에 따라 이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3년제의 본과외에 각각 2년 이내의 예과와 기예전수과를 두고 전자는 보통학교 2학년 수료이상의 학력을 가진 10세의 여자를 수용하여 주로 가사를 비롯한 실과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비록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통학교 교육을 받은 여자를 가지지 못했던 당시의 사정으로는 입학기준을 엄격히 지킬수 없었고 전혀 학교교육을 받

지 못한 자가 입학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기에 학부령 제10호로 전문 24조로 된 관립한성여학교의 학칙이 공포되어 서울에다 관립한성고등여학교(경기여자고등학교 전신)을 설립하였다. 이것을 모범으로 부속 유치원 예과(2년), 본과(3년), 기예과(2년)로 구성된 최초의 관립 여학교로서 초대 교장은 어윤적이 취임하여 1908년 7월 1일 본과 및 예과 수업을 시작하였다. 고등여학교령에 따른 교과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고등여학교 각과 교과목

학 과	교 과 목
예 과	국어, 산술, 이과, 지리, 역사, 수신, 창가, 도화, 체조
본 과	수신, 국어, 일어, 한문, 역사, 지리, 이과, 도화, 가사, 수예, 음악, 체조, 단 수예중 자수, 편물, 조사, 낭물, 조화 및 활쟁의 한과목 혹은 여러 과목을 수의과목으로 하고 외국어(일어제함) 교육대요를 수의과목으로 함.
기 예 전 수 과	수신, 국어, 미술, 음악, 재봉, 수예(자수), 편물, 조사, 낭물, 조화 및 활쟁 일과목 혹은 수과목으로 함. 단 일어 및 가사를 수의과목으로 가함.

이와같은 고등여학교령의 공포와 관립한성고등여학교의 설립은 가정과 교육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초기 가정과 교육에서 볼때 기독교의 여선교사들은 진정한 의미의 교과로서의 가정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었고 기독교의 전파자로 하여금 한국의 생활습관을 익히려는 종교적인 목적이었다고 단지 기술의 습득과 전승에 그쳤으나 고등여학교령의 제정 이후 가정과 교육은 내용면 목적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08년 공포한 고등여학교령에서 각학과목 교수요지중 가정과 교수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가사(家事)·정리상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하고 겸하여 근면 절검 질서 주밀 청결을 상하는 사상을 양함을 함.

② 수예(手藝)·여자에게 적절한 재봉 및 기타의 수예에 운숙케 하고 겸하여 근면, 절약, 이용의 습관을 양함을 요함. 재봉은 보통 의복의 봉법, 보법 및 재봉기계 사용법의 일반을 수함이 가함.

재봉외에 수예는 자수, 편물, 조사, 낭물, 조화 활쟁등 토지정황에 적절한 자를 수함이 가함이라 하여 구체적인 교육목적과 내용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의복의 봉법, 재법, 보법이란 오늘날의 옷의 재단법, 바느질법, 헤어핀 깎는 법이고 수예에서 조사(組絲)란 실의 매듭을 이용하는 법이며 낭물(囊物)이란 염낭이나 주머니등을 만드는 법이고 활쟁(割烹)은 오늘의 조리실습과 같은 뜻이



사진-2 고등여학교령

다. 더욱이 이때 교과목 설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의 요구등을 생각하여 실습교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다.

2.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과 특색

초기의 가정과 교과서는 융희원년(1907)에 발행되었다. 이것은 역서로 남자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1908년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의 공포를 중심으로 1907년 발행된 가정 교과서와 검정규정공포후 발행한 교과서의 내용과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교과용 도서정책

1908년 학부령 제16호로서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하였다. 내용을 보면 각급학교에 관한 법령중 학부에서 편찬한 것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것 또는 이상에 해당한 도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런 원인을 보면 교과용도서 검정규정 공포전까지 사용된 교과서가 질이 낮고 영리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여론과 함께 교과서의 질적 향상과 사상적 통제를 목적으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교과서의 불인가와 발매금지를 위해서 였으나 가정과 교과서의 경우인가 출원부수에 대한 불인가 부수가 하나도 없다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②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과 특징

초기의 가정과 교과서는 1907년(융희원년)에 발행되었다. 발행부수는 3권으로 남자들에 의하여 편찬된 역서로서 그 종류는 표 Ⅲ-2와 같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1907년 발행 가정과 교과서

교 과 서 명	발행연월일	저자 및 역자	제본형식	총페이지	교과서의 체 문	정 가
국문신찬가정학	1907년 8월	박정동 역	한식제본	pp. 95	국 문 체	30전
한 문 가 정 학	1907년12월	현공염 역	양 장 본	pp. 184	한 문 체	일원
신 편 가 정 학	1907년12월	현공염 역 박영부 역	양 장 본	pp. 262	국한문체	90전

가) 신찬 가정학(新撰家政學)

이 책의 저자는 미상이며 1907년 8월에 발행한 교과서이다. 역자는 박정동이고 순한글체로서 총 30페이지이며 중앙서관에서 발행하였고 값은 30전이였다.

이 책의 특색은 가정과 전반의 내용을 수록치 않고 다만 육아법과 가정간호 및 주생활의 일부에 국한되었고 식생활과 외생활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장, 어린아이 교양 태중에서의 교육 젓먹일때 교육, 어린이의 의복, 음식, 거처 어린이 예방주사 놀이와 장난 등에 대하여 기록되었는데 내용이 극히 초보적이고 표현방법이 추상적이었다.

제이장, 가정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가정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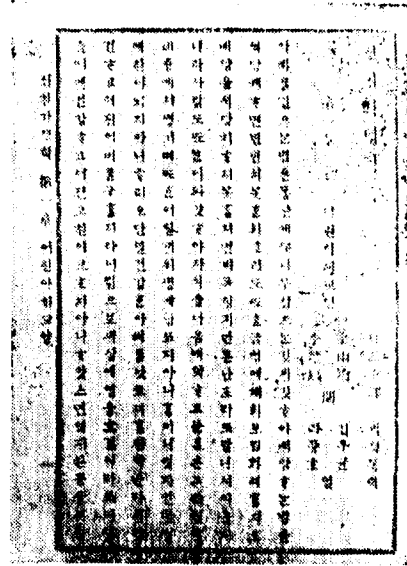


사진-4

신찬 가정교과서 교과서의 내용

였다. 즉 가정교육은 지혜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덕으로 교육하여야만 신체를 강건케 하고 정신을 단련시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였다. 제삼장, 노인의 공경과 봉양, 병간호. 제사장, 가정건강 즉 병의 발병원인 치료법, 병실과 환자간호. 제오장, 사교, 방문과 초대, 연회, 서신, 선물. 제육장, 오늘날 주생활에서 다루어지는 풍수해 방지와 진재와 적환에 대하여 다룬 것은 당시의 시대성에 영향인 것 같았다.

제칠장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하인을 부리는 법 등이 기록되었다.

나) 한문 가정학(漢文家政學)

이 책의 저자는 시모다 우다코(下田歌子) 역자는 현공염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인 여학생들을 위한 가정교과서를 번역한 것이다. 총 184페이지로 1907년 12월 일한 도서 발행으로 오늘날의 가정학 개론과 같은 책으로 의, 식, 주, 육아, 경제, 가정관리, 가족관계, 가정예법등, 가정과교육내용 전반에 걸쳐 수록되었으며 총 5편으로 되어 있다.

다) 가정교육(家庭教育)

이 책의 저자는 남궁억이다. 1908년 학부령 제16호로서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한 이후의 교과서이다. 1914년 11월 5일 유일서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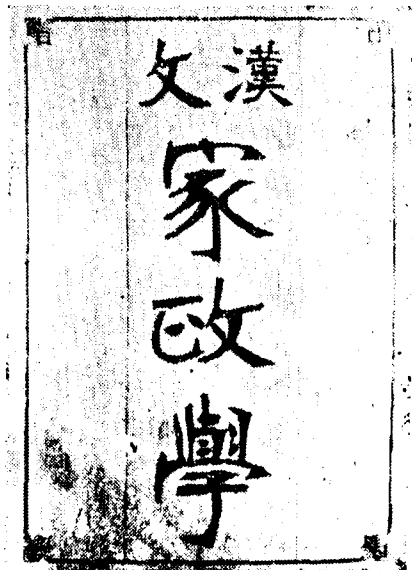


사진-5 한문가정학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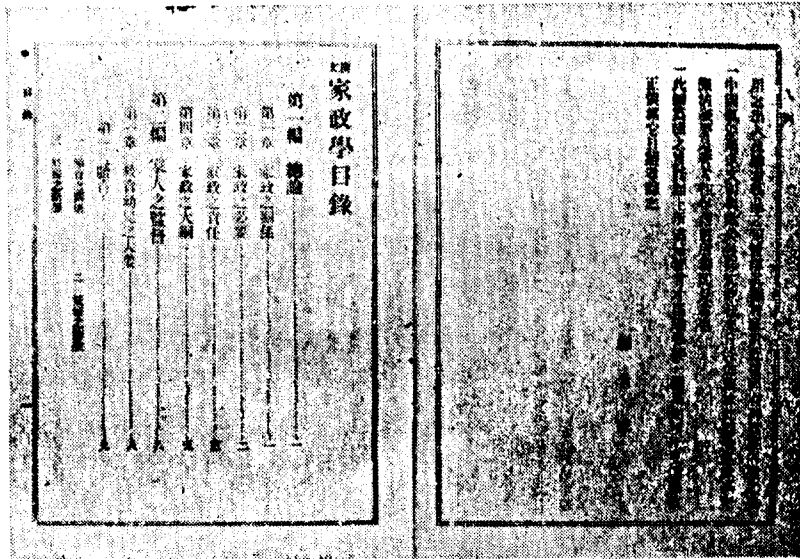


사진-6 한문가정학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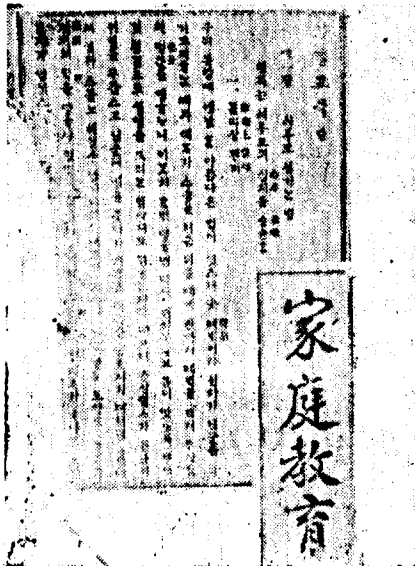


사진-7 가정교육

으로 교과서의 총페이지수는 100페이지이며 한식제 본으로 값은 30전이였다. 내용은 영문을 번역하여 한국가정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육아법과 예절교육을 중요시하였고 식생활 식사법 식품분석표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3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이 예절교육과 육아법에 대하여 많은 페이지를 할당하였다.

둘째 교과내용은 시대성을 고려하였다.

셋째 3권의 교과서를 볼때 가정과 분야가 광범위하여 학과내용의 취급수준이 극히 초보적이였다.

네째 3권다 역서로써 남자들에 의해서 가정과 교과서가 발행되였다.

다섯째 교과내용에 있어 시각적인 효과가 없었다.

즉 내용설명을 위한 그림이나 통계표 분석표등이 없이 문장만으로 구성되였다.

Ⅳ. 일제치하의 가정과 교육

1. 일본의 교육방침

광무 8년(1904) 8월 한일 합방서의 조인이후 일본은 한국을 강제 점령하고 식민정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식민정치는 무력으로 한국인을 지배하고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과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의도하에서 행하여졌고 한국인을 위한 교육목적을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것과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침아래 일본은 보통교육과 실과중심(농, 공, 상, 수산, 가정)의 교육을 중요시하였으나 오늘날의 목적과는 다른 일본의 목적은 단지 전쟁물자의 보급과 물자의 생산공급에 필요한 전문적 직업교육에 목적을 두었으며 우리가 말하는 실과교육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고 가정생활의 양상도 기계를 중심으로 현대화내지 기술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사람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양을 부여하자는데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목적이 다른 것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그들의 정치적인 고려에서 오는 결과라 하겠다.

2. 가정과 교육내용

①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교육이 인간의 생활에 변화를 주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학교의 가정과 교육은 의도적으로 조직화된 가정생활의 지식기능을 부여하며 과학시대와 병진해 나갈수 있는 가정인 양성의 필요성 등에서 볼때 여자에게는 가정이 필수불가결의 과정이라 볼수 있겠다. 이러한 가정과교육은 일제치하에서 그 목적이

「我國家의 본의를 명백히 하고 황국여자의 임무를 자각시킴과 동시에 가정에서 실무를 습득시키고 근로의 습관을 길러 주부와 모로씨의 덕조를 함양한다」

라고 하였음을 볼때 식민지하에서의 교육은 지배자의 도구로써 사용된다고 하겠다. 일본이 제정공포한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을 살펴보면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서는 여자고등학교는 생활실제에 접근한다는 실용주의 교육방침에 충실했다고 볼수 있겠다. 교육령에 따른 훈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과 가사 재봉 및 수예의 과목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배당하고 재봉 및 수예중에서 재봉기계사용법, 염색, 기직(機織)등을 교수하게 한 것은 실용적인 교육을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재봉 및 수예는 전학년을 통하여 일주에 10시간을 2,3학년에서는 이과와 가사를 합하여 일주 4시간을 교수하기로 되어 있으며 1911년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 및 교수시수는 다음 표Ⅳ-1과 같다.

일제 초기의 가정과 교사는 1908년 관립 한성여자 고등여학교에서 재봉을 가르친 김해국

〈표 Ⅱ-1〉 1911년도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 및 교수시간

학과 학년	수신	일어	조선어 및 한문	역사	지리	산술	재봉 및 예수	이과	가사	도화	음악	제조	습자	계
1	1	6	2		2	2	10	2	—	1		3	2	31
2	1	6	2	1	1	2	10		4	1		3	1	31
3	1	6	2	—	1	2	10		4	1		3	—	31

과 1909년 숙명여학교에서 재봉을 가르친 이숙 1910년 동덕여학교의 가사, 편물, 수예를 가르친 윤형사 재봉을 가르친 이문자등에 의해 교수된 것으로 보아 최초의 가정과교사는 관립한성여자 고등학교에서 재봉을 담당한 김해곡이었다.

1922년 개정 교육령의 특징은 각급학교의 입학자격 수업연한 및 학과과정을 높이고 새로이 대학교육 사범교육을 가하였고 가정과 교과과정 및 교수시수를 보면 수예를 재봉에서 분타하여 가설과목으로 했으며 가정과 교과목으로는 의, 식, 주, 양노, 제사, 간호, 보통의류의 봉방, 재방을 주당 4시간에 걸쳐 배웠고 수예는 1시간으로 편물, 자수, 조화를 4학년에 걸쳤고 가사, 재봉에서는 한국 고유의 습관과 풍습을 중요시 여겼다.

1938년 제3차 개정교육령의 반포는 가사과목이 1, 2, 3학년에 1시간 4학년에 3시간 5학년에 4시간씩 되었고 재봉은 각학년 공히 4시간 씩이었다.

1944년에는 학원 전시 비상조치 방책으로 가정교육의 목표는 「我國家의 본의를 명백히 하고 황국여자의 임무를 자각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실무를 습득시키고 근로의 습관을 길러 주부와 모로씨의 덕조를 함양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본은 황민화교육을 통하여 전쟁에 한국인의 육체와 지식과 기술을 전면 이용할 것을 목표로 삼았고 교과시수를 볼때 각각 1, 2학년 공히 피복이나 보건, 육아, 가정을 2시간씩, 3, 4학년에서는 각각 4시간씩이였으며 제4차 교육령이후 식량증산과 군, 피복보수에 많은 수의 여학생들이 동원되어 실질적으로 수업은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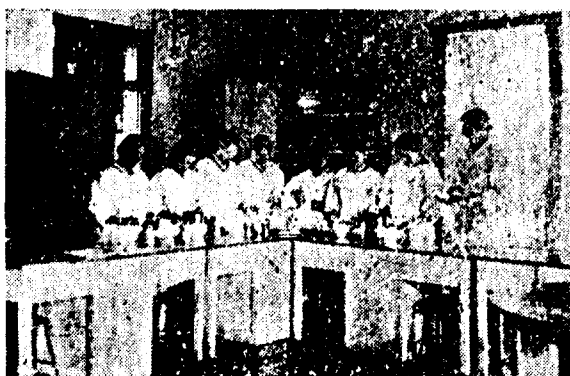


사진-8 가사 실습

② 가정과 시설 설비

1920년대 이르러 이제까지 가정과의 학과목 설정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정과 교육을 전담할 기관이 없었고, 서임에 비하여 낮은 감은 있으나 1920년에 가서야 비로소 가정과 교육의 실습을 위한 시설이 여학교에 하나둘씩 갖추어 지게 시작하였다. 일제 초기의 가정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는 수예실, 조화실, 재봉실, 가사실습실등이 있었는데 이러

한 시설과 설비는 일부 사립여학교에만 있었고 관립 학교에는 1920년대 까지도 가정과 교과를 위한 시설이나 설비가 없었다. 1920년 이후의 가정과 시설설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숙명여학교에 수예실, 조화실, 재봉실등이 있었고, 1921년에 이화학당과 승의여학교에 최초의 가사실습을 위한 가사실습소가 생겼으며, 이화학당의 경우 1921년 8월 가정학을 전공한 미스 모리스(Miss Harriet Palmer Morris)에 의해 가사실습실이 설치되어 가사실습을 하였다. 그 당시 실습내용을 살펴볼때 수예는 한국고유의 풍경을 주제로 한 선죽교, 송학, 무궁화등을 수 놓았고 재봉은 선재와 양재로 구분하여 가르쳤다. 가사실습은 한국음식과 서양음식등의 조리실습과 김장담그는법 장담그는법등을 실습하였고 그 당시는 학생수가 적었기 때문에 개별지도가 가능하였다.



사진-9 시루떡 만들기



사진-10 재봉시간

③ 가정과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가정과 교육을 위한 기관의 설립이 실현된 것은 1922년의 가정교육령에 의거하여 1925년에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1938년에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여자교육을 위한 전문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전문교육 기관안에 가사과가 설치된 것은 1929년 이화여자 전문학교였다. 그 당시의 입학자격은 고등보통 여학교를 졸업한 자를 선정하였고 설치목적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초의 중요단위인 가정을 이상적으로 만들고 국가사회에 기여토록 하였으나 일찍 설치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목 설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관계로 늦어졌다. 둘째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때문 가정과 교과를 담당할만한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가 없었다.

전문학교의 가사과 학습내용은 음식의 영양분석 온돌부엌의 개량 각종요리실습, 식품만들기, 식이요법, 영양식, 미용식, 정원꾸미기, 가족기르기 까지 생활을 분기 평가하고 연구 개선하여 나아가서는 가정의 가족관계 가정경영관리 의, 식, 수 생활 건강생활의 개선

향상을 했다.

이와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은 재태생활 방식을 합리화하고 가족관계 가족제도의 이념을 개선하는 등 생활현대화의 기수가 되었고 전문학교 가사과를 담당한 교사 역시 여선교사이었고 1929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에 김합라가 재직하여 요리, 재봉, 재봉, 육아, 가정관티를 가르쳤다. 또한 중등학교에서 가정과 교육을 목적으로 군산 가정여학교(연대미상) 성신 가정여학교(1938)등이 가사교육을 위한 여성생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수업연한은 3년이었고 학급편성은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고 있었으나 본과 연구과 보수과를 두었으며 교과목으로는 예법(차다루기, 반상다루기, 과일다루기, 제기다루기, 몸가짐과 생화, 편물, 가사(이론 및 요리실습), 염색, 세탁, 수예, 양재, 한재, 폐물의 이용등 가정과 전반에 걸쳐 가르쳤으며 한국고유의 풍습 및 가법을 중요시한 결과 민족교육으로써의 가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과면 학습면에서 볼때 가정과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부족으로 통일성을 볼수 없었다. 오늘날 이와같은 가정 학교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학제개편에 따라 여자중, 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4) 행사 및 과외활동

가정과 교육의 실시를 위한 하나의 행사로써 개최한 전람회는 많은 사람에게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보여 주므로써 재래식 생활방식에서 탈피하여 생활개선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 당시 전람회에 출품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염색을 한 책보자기·방석 및 음식, 재봉—타레버섯, 애플론, 유아복, 잠옷, 양복, 모자, 부인한복, 와이셔츠

편물—편물, 전등카바

자수—벼개마구리, 수방석, 상보, 선죽교, 송학, 무궁화등 풍경을 주제로 한 액자 쿠포 및 문화자수

인형—인형은 외국에 여행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각국의 의상과 얼굴을 보여주는 의도하에서 출품.

이러한 전람회의 준비는 주로 한국인 교사가 알았었다. 전람회의 개최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람회의 개최는 민족정신의 함양과 함께 가정과 교과외 학습내용을 일반에게 보여 주므로써 기술과 지식 및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자수기능의 활용과 정서적 교육을 위하여 과외활동을 학교에서 권장하였다.

셋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개선의 지표로 삼도록 하였다.

V. 결 론

우리나라 여성교육은 1890년대 개화기에 와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비롯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제도 조직이 우리의 흥미와 필요에 의해 창조된 내용과 형태가 아니고 양적 외형적인 면에 치우친 교육이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과교육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다. 본연구는 개화기로부터 해방전까지의 여자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의 사적 고찰을 통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기의 여성교육은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서 시작됐다. 기독교의 여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여자 교육을 향상시켰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관혼상제의 허례허식의 배제와 서양문물의 소개로 음식, 의복, 가정일반에 많은 지식을 보급시키고 생활 개선에 힘썼다.

2.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학교교육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을 1896년 이화학당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3. 교과서는 그 분야가 너무 넓었으며 학과내용의 취급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것이었다. 개화초기에는 교과서가 없었고 등사본에 의존하다가 1908년 고등여학교령의 공포와 함께 가정과 교수요지 및 교과목이 설정되었고 1907년에 교과서가 나왔다.

4. 학과목 설정에 예산이 많이 들어 1920년대 가서야 비로소 가정과 교육을 위한 재봉실 조화실, 가사실습실이 마련되었다.

5. 가정과 교육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1925년에야 이룩되었다는 것은 일제치하의 교육정책의 영향이며 가정과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부족으로 교과면, 학습면에서 통일성을 볼수 없었다.

6. 일제치하의 가정과 교육은 여성의 생활화와 더불어 민족교육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제도의 개혁과 계몽운동에 의식주생활등의 생활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성으로서의 부덕함양에 치중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가정과 교육의 방안모색 자료로 삼으려 했으나 참고자료와 시간의 상당한 제약을 받아 충분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이 방면에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해주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1.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서울: 현대교육입서출판사, 1964.
2. 韓基彦, 韓國教育史, 서울: 박영사, 1971.
3. 진단학회, 韓國史(현대편, 연표), 서울: 을유문화사, 1961.
4. 李能和, 朝鮮女俗考, 서울: 학문각, 1968.
5. 이화여자내 학교 한국여성사편찬위, 韓國女性史(Ⅱ, Ⅲ), 이대출판부, 1967.

6. 李圭煥, 『日帝時代の 中等學校教育科程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논업, 15, 1969.
7. 정충량, 梨花八十年史, 이대출판부, 1967.
8. 李榮德, 教育의 과정, 서울: 박영사, 1971.
9. 한국중등교직원공제1회, 교육과정운영총설, 중등교수자료출판, 1971.
10. 경기여고 60년사, 경기여자중·고등학교, 1968.
11. 박찬일, 승의 60년사, 승의여자중·고등학교, 1963.
12. 숙명 50년사 편찬위, 숙명 50년사, 숙명 50주년기념사업회, 1952.
13. 김영삼, 정신 75년사,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62.
14. 김세환, 배화 60년사, 배화여자중·고등학교, 1958.
15. 성신 25년사, 재단법인, 성신학원, 1961.
16. 동덕 50년사 편찬위, 동덕 50년사, 동덕여자중·고등학교, 1960.
17.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1961. 11. 10.
18. 이대가정대학편, 가정관리연구, 이대가정대학, 1971. 2. 20.
19. 金吉子, 국민학교 가정과 교육실태에 관한 일 연구: 이대교육대학원, 1971.
20. 康允浩, 『개화기의 교육용도서에 나타난 외래어 표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논집, P18, 1971.
21. 성영용, 가정과 조리실습교육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1.
22. 常見育男, 家庭科教育史, 東京: 光生館, 1960.